

브리지스톤 코리아, 시각장애인의 이동권 증진을 위해 (사)서울특별시시각장애인연합회에 미화 11,000달러 기부

- 브리지스톤 코리아 기부금,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리모컨의 구입과 시각장애인콜택시(일명 복지콜) 1일 무료 승차 이벤트 진행에 사용 예정
- 장애인 이동권은 브리지스톤이 추구하는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 솔루션의 한 부분



전세계 타이어 및 고무 산업을 선도하며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를 위한 제품 및 솔루션을 공급하는 브리지스톤의 국내 법인 브리지스톤 타이어 세일즈 코리아(대표이사 김헌영, www.bridgestone-korea.co.kr, 이하 브리지스톤 코리아)가 시각장애인 이동권 및 보행을 돕기 위해 (사)서울특별시시각장애인연합회에 미화 11,000 달러(USD)를 기부했다.

시각장애인에게 보행이란 또 다른 세상으로 나올 수 있는 발걸음. 시각장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방향과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 리모컨을 소지해야 정확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

브리지스톤 코리아가 (사)서울특별시시각장애인연합회에 전달한 기부금 미화 11,000달러는 시각장애인 이동권 지원을 위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 리모컨의 구입과 시각장애인콜택시(일명 복지콜) 1일 무료 승차 이벤트를 진행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브리지스톤 코리아의 이번 기부가 이동권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각장애인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서울특별시시각장애인연합회 조형석 회장은 기부금 전달식에서 “시각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뜻깊은 기부금”이라며 앞으로도 시각장애인의 이동권에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브리지스톤 코리아 김현영 대표이사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이번 후원은 최근 브리지스톤이 전세계적으로 공표한 2030년을 향한 여덟 가지 기업 가치인 ‘브리지스톤 E8 커밋먼트’의 구체적인 실천”이라고 말하며, “나이, 성별, 장애의 차별 없이 사람들이 학교, 직장, 일상 생활에서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해주는 이동권은 브리지스톤이 추구하는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 솔루션의 한 부분입니다. 장애인의 이동권 증진에 앞으로도 더욱 관심을 가지겠습니다”라고 말했다.

###